



Today: 1, Total: 1830

**SNU ee
NEWSLETTER**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뉴스레터 2009, 여름 / 창간호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점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 전기공학부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합니다. ”

2009년 하반기부터 전기공학부 학우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공학부 뉴스레터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웹진 형식으로 발간될 뉴스레터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강의실을 벗어나 학우들의 다채로운 삶을 그리고 학교의 주요한 소식들이 학우들의 정감을 통해 활기차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의 학우들이 모르는 숨은 이야기, 꼭 알아야할 소식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이 모여 전기공학부 학우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범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과 1기 홍보도우미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띄우며, 뉴스레터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부장 서 광 석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행사

· 세미나

· 동아리

ee인과의 만남

· 사회속의 EE인

· 김용권교수님 인터뷰

우리들의 이야기

· 롤루,랄라,R,C반 소개

· 연구실 인턴

· 아카몬(赤門)이야기

· 외국인 재학생

· 외국인 졸업생

· 여학생 대표

· 학생기자단 후기

노종선 연구부학부장



연구부학부장
노종선 교수

전기공학부가 매우 큰 학부이다 보니 학우들 사이에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우들 사이에 얼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웹진 형태의 뉴스레터를 창간함으로써 전기공학부 학우들 사이에 대화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같은 학부생으로서의 소속감 및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전기공학부 학우들이 이번 에 창설된 웹진을 활발히 이용하여 우리 학부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우들 모두가 행복한 학부생활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학부의 웹진 뉴스레터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김용권 교무부학부장

전기공학부는 교수님과 학생의 수가 서울대 내 단과대학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교무에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신속히 알리는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이 발간되는 뉴스레터가 교무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학부 구성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무부학부장
김용권 교수

김태환 학생부학부장



학생부학부장
김태환 교수

전기공학부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전기 공학부 학우들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 학부의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우리 전기공학부 학우들에게 보다 유익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뉴스레터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대학에서의 생활이 학우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생각할 때,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알찬 정보와 소식을 접하기를 바라며 뉴스레터가 대학 생활에 유용한 나침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통해 학우들과 교수님 간에 더 친밀한 만남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뉴스레터 출범을 위해 수고하신 학부 직원들과 도우미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통해 학우들과 교수님 간에 더 친밀한 만남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뉴스레터 출범을 위해 수고하신 학부 직원들과 도우미께 감사드립니다.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학부동정

2009. 01. 14 ~ 16	학부발전 교수 워크숍(제주도)
2009. 02. 27	교수정년퇴임(이종덕 교수, 민홍석 교수)
2009. 03. 11	박병국 교수 공과대학 발전공로상 수상
2009. 04. 20	전기전자제어동문회연합회 정기총회 및 전기공학부 동문회 창립총회
2009. 06. 01	정덕균 교수 호암상 수상
2009. 06. 03	교수 학과 탐방 행사
2009. 06. 04	정석태 선생 느티나무상 수상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반별 소개

- R반
- 룰루반
- 랄라반
- C반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Today: 1 , Total: 979



안녕하세요 저는 R반 과장 07학번 이위직입니다.
먼저 저희 R반의 R은 RLC(Resistance, Inductance, Capacitance)의 R, 즉 저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항을 하는 반은 아니고 전기공학의 기초가 되는 것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R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매일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즐겁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선후배, 동기들과 축구, 농구를 하기도 하고 가끔씩 과방에 모여서 게임도 합니다. 그래도 시험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항상 언제나 잘 뭉쳐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즐거운 것이 R반의 특징입니다.



전기공학부에서 시험을 정기적으로 자주 치는데 시험과 시험 사이나 숙제가 잠깐 없는 기간에는 다 같이 엠티도 가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06,07,08 학번 별로 엠티도 자주 가고 또 3월달엔 총엠티도 가서 선후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이야기도 하고 게임하고 놀다보면 서로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저희 07학번끼리는 계곡에서 같이 놀 계획을 잡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반에서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방학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중에 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희 반에서 처음으로 장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라 모두가 설레기도 해서 고학번 선배들도 오셔서 와인도 준비하고 칵테일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파인애플, 파전, 치즈퐁듀 등등 하나하나 직접 만들기도 했고 모두가 9시부터 5시까지 서있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장터행사를 이어나가 R반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할 생각입니다.
또 R반만의 행사가 아닌 전기공학부 전체 엠티인 전공하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수님, 대학원생들과 같이 모여 좋은 이야기도 듣고 전기공학부의 다른 반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말 그대로 전기공학부가 하나되는 나들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골든벨, 등산,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가 많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봄에는 봄이만큼 노천강당 잔디밭에서 꽃놀이도 했는데 고학번 선배들 부터 09까지 모두 다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연중행사가 많고 또 좋은 행사건이 있다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좋은 선배님들을 통해 넓은 인맥도 있는 곳이 바로 R반입니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I 반별 소개

- R반
- 롤루반
- 랄라반
- C반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롤루반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른 과의 경우엔 반의 이름을 A, B, C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과와 차별화를 선언한 전기공학부는 처음 반의 이름을 물리학의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RLC(저항, 코일, 축전기) 회로에서 따서 R, L, C 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8학번 때 점점 늘어나는 인원때 따라 3개의 반이 아닌 4개의 반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반의 이름을 공모하던 중 L반 선배께서 술자리에서 L반을 LULLU, LALA로 나누자고 하셨는데, 이로써 롤루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롤루반의 연중행사를 알아볼게요~ 롤루반의 가장 큰 행사는 장터와 일일호프입니다. 장터 때는 관악캠퍼스 특정구역에서 여러분이 직접 먹거리와 술을 팔게 됩니다. 작년에는 학생회관 앞에서 순대볶음, 파인애플꼬치, 파전, 닭꼬치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았고, 03 학번 선배님이 오셔서 컵테일도 만들어 팔았답니다. 일일호프도 장터와 비슷한데요~ 장터가 따뜻한 1학기 때 한다면 일일호프는 추운 2학기 때 따뜻한 술집을 빌려 하루 동안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장터와 또 다른 점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웨이터가 되어 미리 준비된 술집의 안주를 서빙하고, 술을 팔고, 또 그것들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지인과 선배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죠! 자신의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죽도록 서빙하는데 친구하나 안 오면 얼마나 서글픈지.. 롤루반은 재작년부터 신촌까지 진출해 웨이터 차림으로 옷을 차려입고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엄청난 호응과 함께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입학식 때 입고 구석에 넣어두었던 정장을 다시 한 번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롤루반만의 행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협찬을 받아 전기공학부가 주최하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초호화 엠티 전공 하나(전기공학부 하나 되는 나들이), 전기공학부 체육대회, 전체 엠티, 뽐엠(학번엠티) 등등 수많은 행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롤루반의 가장 큰 소모임인 FC롤루를 소개해야겠네요. 06년부터 준 동아리화를 지향하면서 전기컴퓨터 공학부의 다른 반 학우들은 물론 다른 과의 학생들도 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의 멤버들이 대부분 롤루반인 것을 감안하면 롤루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열린 전기공학부 축구대회에서 여러번 우승을 거둔 만큼 실력은 출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를 좋아하는 멋진 선배들과 아리따운 매니저분과 함께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301동에 올라가게 되면 야구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데요! 야구 게임 마구마구 뿐만이 아니라 롤루반은 공대에서 유일하게 한 반만으로 야구팀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미리 야구 응원팀 하나 만들어 두세요! 참고로 ‘롤루 라이트닝스’ 라는 반내 야구팀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롤루반 클럽의 명물 The lullu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The lullu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물소개 글인데요, 롤루반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선정해서 선정된 분께 평소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을 모아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롤루반 전체가 보는 인터뷰를 통해서 잘 모르던 선배도 알게 되고, 서로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롤루반의 전통이죠! 그 밖에도 롤루 클럽에서는 매년 스타크래프트, 카오스, 워닝, 서든 등 다양한 게임의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리그에서 자신의 게임실력을 뽐내보세요~! (이걸 통해 선배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쉴새 없이 반 행사를 나열하다 보니 1년 동안 놀기만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롤루반은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땐 열심히 놀 줄 아는 멋진 선배들이 많답니다^^ 롤루반에서 대부분의 강좌 1, 2등을 다룰 정도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죠.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롤루반은 선배와 후배, 같은 학번끼리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I 반별 소개

- R반
- 룰루반
- 랄라반
- C반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Today: 2, Total: 614

안녕하세요, 랄라반에서 인사드립니다. 랄라반은 전기공학부에 속해있는 4개의 자치반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새내기 09학번 41명을 받았고 이로써 570여명이 랄라의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랄라반의 학생회는 각 학번마다 있는 5명의 학번대표(이하 뽀대)와 뜻있는 학우들, 그리고 과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12대 과장 이준민(07)을 중심으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봄학기 시작에는 새내기들이 학교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를 만들어줍니다. 새터와 오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환영회를 통해 선배들과 만남의 자리를 주선합니다. 학교의 지리를 익히는 관악투어, 대학생으로서의 교양을 쌓기 위한 교양학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독서를 장려하고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책 읽기 모임 등은 해마다 새내기들을 위해 랄라반에서 준비하는 행사들입니다.



07년도부터 다시 시작한 농활은 (전기과에선) 랄라반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9박 10일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패밀리가 떴다”와 같이 유쾌한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동교육과 일손을 보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도 얻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접할 수 없는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 이야말로 농활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외에도 학우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소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소모임으로 매학기 시합을 주최하고 있는 축구모임 'FC Foot'이 있습니다. 식도락모임으로는 방학마다 주변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맛탐'과 고기를 제대로 알고 즐기자는 육식소모임 '브루스타'가 있고 모두 인기있는 모임입니다.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소모임으로는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나누는 '할리우드', 기타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연습하는 '정상파'가 있습니다. 위의 소모임들은 정기적으로 반학생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결성되는 스타모임 'STG', 당구모임 'Giant', 부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복불복' 등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학기 개강파티, 종강파티, 소풍, 총애티 등을 열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랄라반의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가장 유쾌한, 그러면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랄라반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랄라반 커뮤니티 <http://snulala.cyworld.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반별 소개

- R반
- 룰루반
- 랄라반
- C반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Today: 1, Total: 610



안녕하세요,
전기와 RLC회로에서 Capacitance를 맡고 있는 전기 C반 SOEEC(School of Electircal Engineering C)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행사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 입학 시즌인 2월에는 신입생 OT와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안면을 틀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후 새내기새로배움터(약칭 새터)에서 2박3일간 학과와 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1학기가 시작되면 버들골에 모여 산타마리아 춤, 수건틀리기 등의 놀이를 막걸리와 함께 즐기는 입학식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개강파티를 통해서 학기 초, 선·후배·동기 간의 관계 형성을 도모합니다.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할 3월 중순쯤 되면 ‘교양학교’라는 행사를 합니다. 교양학교는 사회 시사적이거나 깊이 생각해 볼만한 주제를 잡고,조를 정하여 세미나를 하고 토의도 하며 자칫 유흥에만 치중하기 쉬운 과행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행사입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MT를 통해,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밤늦도록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공유할 추억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반 엠티 갈 때 거의 90%의 확률로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물놀이하고 고기 구워먹고 다 했었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는 신입생인 09학번 학생들의 주도로 장터도 했는데요,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기행사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행사로는 종강파티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선·후배간의 고민, 고충과 한 학기를 지내며 느꼈던 점들을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 행사는 가볍게 개강파티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입생 위주로 일일호프를 진행합니다. 장사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으기, 메뉴 정하기, 가게 꾸미기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즐겁고 보람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MT를 또 가고요, 마지막으로 종강파티로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 과 행사를 통해 우리는 학번을 가리지 않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반의 on-line 커뮤니티인 싸이월드 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club.cyworld.com/snusoeec>

반 행사 과 행사 등의 공지사항도 볼 수 있고, 각 학번별 그리고 학번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점은, 선배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활성화 되어있는 점입니다. 병역, 동아리, 전공 교양 강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반의 과방은 301동 318호 전기공학부 학생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오른쪽 공간입니다. 이곳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C반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면 됩니다.



장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I 동아리

- 야구동아리 EBC
- 로봇동아리 Sigma
- 밴드동아리 Amplifier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EBC 소개

전기공학부 야구부(EBC)는 80년대에 전자공학과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학원생 중심으로 창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제로 변경되어 전기공학부가 생긴 92년 이후에는 전기공학부 야구부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야구를 통한 친목 도모와 야구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내 야구대회인 총장배 야구대회 백학기(매년 60여개 이상 팀이 참가)에 매년 참가 하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최근 2003, 2006, 2008년 우승을 거두며 관악 최강의 야구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EBC의 팀컬러는 오래된 팀에서 묻어나는 관록으로 쉽게 지지 않으며, 한 번 찬스가 오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더불어 부원들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운동부와는 달리 매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히 승부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야구를 통해 전기공학부 내에서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덕목을 키우자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B 명단

강소희 (MN)	강필성 (P, 1B, CF)	권용민 (2B, 3B)
권정현 (P)	김상완 (OF)	김선권 (P)
김성우 (2B)	김영빈 (2B)	김태호 (2B, 1B)
김현 (3B, C)	김정훈 (2B, OF)	김종택 (P, 3B, CF)
문영배 (3B)	박세범 (C)	박재형 (C)
박주성 (C)	박현욱 (1B, OF)	유현도 (OF)
이임용 (RF)	이재홍 (2B 3B)	임정우 (P)
임희수 (3B)	지한규 (P)	정성현 (OF)
최동표 (SS, 2B)	최성태 (LF, RF)	최성훈 (C, 3B)
황지행 (SS, P)		

OB 명단

김규홍	김기범	김상훈	김용주	김응찬
김진우	김호신	남성일	홍성현	신성국
오태욱	윤상호	윤승영	이상근	이재동
정광모	제희원	최윤석	한성근	조성민
이천안	장경철	최민석		



최근 (2000년 이후) 수상내역

2001	공대야구대회 우승
2002	총장배(백학기) 야구대회 우승
2003	종합체육대회 우승
2003	공대야구대회 준우승
2006	삼성라이온스배 단대야구대회 우승
2006	총장배(백학기) 야구대회 우승
2007	관악리그 준우승
2007	공대야구대회 우승
2008	총장배(백학기) 야구대회 우승
2008	SNU리그 페넌트레이스1위
2008	공대야구대회 준우승
2009	SNU리그(20개 팀 참여) 현재1위

가입하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야구를 즐기고 싶은 사람, 야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 좋은 선후배를 사귀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고 싶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에게 우리 EBC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매 주마다 야구장에 모여 연습을 하면서 실력도 쌓고 친밀감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습시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연습 일정 및 EBC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세요.

EBC 홈페이지

<http://club.cyworld.com/snuebc>

주장 황지행 : 016-611-1750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I 동아리

- 야구동아리 EBC
- 로봇동아리 Sigma
- 밴드동아리 Amplifier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Sigma Intelligence 란?

Sigma Intelligence(이하 시그마)는 1985년에 전기공학과 선배님들에 의해 만들어져 2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하드웨어 동아리입니다. 84학번 선배님들부터 올해 들어온 09학번 새내기들 까지 총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그마에서 활동하였고 지금도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졸업한 회원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고, 특히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저희 동아리 담당 교수님이신 심형보(6기) 교수님이시지요.

현재는 전기공학부 소속이라, 회원의 대부분이 전기공학부 학생입니다만, 가까이는 301동 302동에 함께 살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부 학생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멀리는 저 아래의 미대 학생까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신입생 교육 (3월 ~ 5월)

매년 1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AVR(ATMEGA16) 보드를 제작하고 제작한 보드를 사용한 Application을 매년 전시회에 출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입생 교육을 위해서 강의와 실습이 3월 말부터 매주 한번씩 한 학기 정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동안 신입생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는 Tetris 게임기, 초음파 센서 카운터, 그림 맞추기 퍼즐, 4족 보행 로봇, 6족 보행 로봇, 전광판, Voice Recorder, 테마 시계, 자동 블라인드, 미니선풍기, 장애물 감지 로봇, RC-Car, Line Tracer, Avoider 등이 있습니다.

대회참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로봇, 설계 관련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가한 대회는 Motorola Lab 홈페이지 경연대회, FIFA Korea CUP 로봇 축구대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모전,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회, 한국지능로봇 대회, 충남대 지능 로봇 경진대회, POSTECH 주최 IRC, 로봇피아드 인명구조로봇 부문, 유비쿼터스 로보크래프트 경진대회, KAIST SDIA 주최 SOC Robot War, 한양대 지능형 자동차 경진대회 그리고 전기공학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자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수상경력도 많이 있구요, 현재는 지능형 자동차 대회와 창의 설계 경진대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정기 전시회 (9월)

시그마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초 정도에 문화관 전시실 혹은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2~3일 동안 열리며, 1년 동안 동아리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전시했던 작품들로는, 마이크로마우스,로봇축구, Line Tracer, 방문객 카운터, 터치스크린, 마이크로 마우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DirectX를 사용한 슈팅게임, 3D Mouse, Vision Board, 장애물 감지 로봇, 인터넷폰, 극한지형 탐사로봇, 지능형 자동차, 초상화 로봇, 물체 감지 로봇, GPS 모형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입생
교육 (3월 ~ 5월)

대회 참가

정기
전시회
(9월)각종 행사 참가
및 지원

시그마의 활동

시그마는 전기공학부의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공지식들, 그리고 각종 CPU와 Controller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제작하고 구현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입생 강의를 실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스터디 활동을 하며 작품제작, 전시회 개최, 외부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 외에도 매년 MT, 중강·개강 파티, 내부 로봇·게임 대회, 소풍 등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 시그마에서 활동하고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활동 중인 후배들과 만남을 가지는 '홀커밍 데이'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참가 및 지원

대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열리는 각종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 받은 작품을 제작하거나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전기공학부에서 진행되는 강의의 수업 또는 실험 실습을 지원하기도 했고,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해바라기 과학교실'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SBS '생방송 기아 체험 24시'에서 기계장치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과학의 달을 맞아 열린 '수학 과학 체험전'에 참가하여 학생들이 시그마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체험해볼 수 있게 하고 로봇의 제작과 동작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글, 사진 /
조길현 (학부 07)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야구동아리 EBC
- 로봇동아리 Sigma
- 밴드동아리 Amplifier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Amplifier

Amplifier(이하 앰프)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소속 밴드 동아리입니다. 2009년은 앰프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현재 1기부터 10기까지 약 7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 공연과 그 외에도 새터 공연, 클럽 대관 공연, 행사 초청 공연, 거리 공연 등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오디션을 통해서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보컬을 파트별로 모집합니다. 오디션에서 실력보다는 열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앰프에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현역으로 2년간 활동한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전기과 밴드지만 타과생들의 가입을 제한하지 않아서,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6동 1층에는 원하면 언제나 함께 모일 수 있는 동아리방과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있곤 합니다. 앰프는 지난 10년간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즐겁고 열정이 가득한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기공연과 오디션 등의 행사에 전기공학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밴드동아리

아 크로거리 공연



공 연 후 단체사진



Today: 1, Total: 719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행사

2009. 02. 17 신입생 OT



2009. 03. 05
진입생 전과생 편입생 OT



2009. 03. 30 고산 강연회



2009. 04. 17, 24

학부과정 및 과목 설명회

2009. 05. 01

할매회(여학생회) 모임



2009. 05. 13 김영국 변호사(전자 90), 남정길 변리사(전자 91) 특강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행사

2009. 05. 15 전기공학설계프로젝트 발표회



2009. 05. 22 ~ 24

전공하나 (전기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2009. 06. 16

졸업예정자와의 대화





Today: 1, Total: 686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의 새로운 응용

연 사 : 권 영 우 교수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일 시 : 2009년 3월 5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

마이크로파란 파장이 1mm에서 1m, 주파수로 보면 0.3GHz에서 300GHz에 이르는 넓은 대역의 전자파로서 1900년대까지는 주로 레이더, 유도무기등의 군사적 응용에 사용되는 군수기술로 분류되어 왔었다. 2000년대 들어 이동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0.8~2.5 GHz 대역의 마이크로파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carrier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다양한 무선통신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기존 주파수 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새로운 원천 기술 및 주파수 자원의 개척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마이크로파의 기존 응용 분야인 군사, 무선통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응용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미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아닌 30 GHz 이상의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응용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밀리미터파는 멀티미디어 등의 광대역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넓은 대역폭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징 응용 시에는 고해상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는 밀리미터파 이용이 RF 부품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성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 RF 집적회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상용화 되고 있는 자동차용 레이더, 무선 HDMI 전송 기술, 수동 이미징 기술들을 살펴보고, 전혀 다른 방향의 응용분야인 biomedical 응용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Seminar Info.

미디어의 미래-소셜 미디어와 뉴미디어

연 사 : 금 기 현 대표이사 (전자신문)
일 시 : 2009년 3월 12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통 저널리즘이 위협을 받으면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의 부상으로 기존의 보는 뉴스에서 참여하는 뉴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와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 변화가 맞물리면서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Seminar Info.

글로벌 인재

연 사 : 이 여 성 부회장 (현대로템)
일 시 : 2009년 3월 19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

현재의 위기경영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글로벌 인재상을 조명해 보고, 글로벌 인재의 조건인 문화적 정체성과 개방성의 균형 감각을 갖추고 세계와 소통해 나가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선배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함.

Seminar Info.

기술자가 경영자가 되고 나서

연 사 : 김 달 수 사장 ((주)TLI)
일 시 : 2009년 3월 26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반도체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하여 IMF의 어려움과 초기 사업 실패를 이겨내고 TFT-LCD 용 Timing Controller로는 국내 최고의 회사로, 국내 Fabless 반도체 회사의 시가총액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회사로 성장시킨 티엘아미의 김달수 사장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공학도들에게 들려주는, 부탁하는 이야기.

Seminar Info.

디스플레이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연 사 : 정 인 재 부사장 (LG 디스플레이 CTO)
일 시 : 2009년 4월 2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현 디스플레이 기술의 산업 동향 소개 및 기술진행 현황을 파악해보고, 디스플레이 시장 내 LCD 산업의 비중과 위치, 향후 LCD Application의 영역 확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또한 LG Display 현황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성과, 차별화 전략을 통한 향후 신제품 개발 및 지속적 수익 창출 모델을 소개한다.

Seminar Info.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급변하는 신 국제화 시대의 성공 전략

연 사 : 강 성 옥 총괄사장 (시스코 Asia)
일 시 : 2009년 4월 16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급변하는 신 국제화 시대에서 한국이 향후 생각해야 할 부분, 즉 국제화 시대에 추구해야 하는 것들과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그리고 일부 기술중심적인 미래 전략 등도 소개한다.

Seminar Info.

기업은 무엇으로 사는가?

연 사 : 이 덕 수 사장 (네오피델리티)
일 시 : 2009년 4월 23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기업(또는 기업인)이 존재하는 기반은 돈(money)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을 시작하고,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돈을 너무 벌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창업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최선의 전략을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을 일궈나가는데 있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과 전략을 돌아보기에는 너무 왜소한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실험실 창업기업인 네오피델리티가 지난 1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벤처기업의 속성과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인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Seminar Info.

Mobile Handset Technology Evolution

연 사 : 광 우 영 부사장 (LG 전자 MC 연구소장)
일 시 : 2009년 5월 7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이동 단말 시장의 Global Market Trend를 Review 해보고 현재의 Global Recession을 바람직하게 대처하기 위한 Key Success Factor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동 통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4가지 주요 Key Driving Technology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LG전자 단말 연구소(MC 연구소)를 소개한다.

Seminar Info.

Development of VTOL Cyclocopter and Its Spin-off Application to Wind Turbine

연 사 : 김 승 조 교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일 시 : 2009년 5월 14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사이클로콥터는 새로운 개념의 수직이착륙 비행체로서, 회전축에 평행하게 회전하는 다수의 로터 블레이드로 구성된 사이클로미드 블레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력을 얻는다. 로터 회전시 각 블레이드는 주기적인 피치각 변화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회전축에 수직인 임의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제자리 비행 및 전진 비행이 가능하고, 높은 기동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블레이드 전체가 회전축에 평행하게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의 경우에 발생하는 블레이드 끝단에서의 와류에 의한 소음이 적고, 제자리 비행 시에 효율적인 요구마력 대 추력비를 보인다. 이러한 사이클로콥터의 개발은 정찰, 탐사, 감시 등 회전익 수직이착륙기에 대한 다양한 용도의 민군수요를 충족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의 연구 개발을 통해 얻어진 사이클로 블레이드 시스템 관련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고효율 수직 형 소형 풍력 발전기 Cyclo Wind Turbine, 작은 규모의 하천, 해류, 조류 등에서 발전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 시스템, Cyclo Water Turbine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은 수직축이 가지는 정비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독립전원용 일반 개인용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의 보급은 대형 기업형 풍력 발전의 현 추세를 능가하는 대체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minar Info.

정덕균 교수 호암상 수상 기념 강연

제 목 : 고속 집적회로 설계 기술의 발전 역사와 전망
일 시 : 2009년 6월 5일 금요일 16:00-
장 소 :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
연 사 : 정 덕 균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요약

반도체공학의 역사가 시작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금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며 지금은 나노 영역의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적회로의 발전은 공정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눈부시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트랜지스터 크기의 축소 경쟁을 계속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빛의 절대 속도가 반도체에서는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설계 기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속도와 크기만의 향상 보다는 창의성의 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집을 지을 수 있느냐가 건축가의 창의성에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동안의 고속 집적회로의 발전 역사와 그 추세를 정리하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전략적 분야에서 어떻게 창의성, 민첩성, 기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격화되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Smart Antenna”

강 사 : Prof. Tapan K. Sarkar
시 간 : 2009년 5월 20일(수) 오후 4시 ~ 6시
장 소 :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1층 대회의실
ABSTRACT

Smart Antenna는 위상배열 안테나를 통신에 적용한 개념으로 위상배열레이더, STAP(Space Time Adaptive Processing), Adaptive Beamforming 등과 관련 있는 주제이다. 본 세미나는 Smart Antenna와 위상배열레이더에 적용되는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위해 마련되었다.

Seminar Info.

u-City 현황 및 서울시 사례

연 사 : 송 정 희 단장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일 시 : 2009년 5월 21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u-City 사업의 필요성과 중앙/지방 정부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u-City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u-Seoul의 추진배경과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산업, 행정/도시관리, 안전 등 분야별 u-City 사업성과를 사례별로 소개한다.

Seminar Info.

항공전자 개발 사업

연 사 : 장 성 섭 본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일 시 : 2009년 5월 28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항공산업이 가진 산업적 특성을 소개하고, 세계시장 규모와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규모를 소개하고 KAI가 이루어낸 항공기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항공 산업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항공산업 중에서 점차 그 중요도 높아져 가는 항공전자 부문의 세계적인 발전방향과 발전되어가고 있는 기술적 추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항공전자 수준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여 항공전자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게 한다.

Seminar Info.

LS산전의 Green Business

연 사 : 구 자 균 사장 (LS 산전)
일 시 : 2009년 6월 4일 (목) 오후 5:30~6:20
장 소 : 서울대학교 301동 118호

Abstract:

LS그룹의 탄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산전의 주요 사업내역 및 성과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한국전력산업의 특징 및 전력산업 변화의 원인,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의 역할과 예상 효과 소개 및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된 미래 도시에 대한 소개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스마트 그리드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 및 현 기업들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현황과 향후 정부, 기업, 학계에서 추구해야 할 스마트 그리드의 방향을 제시한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I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Q. 교수님의 학창시절이 매우 궁금한데요, 교수님의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교수가 되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79학번으로 서울대에 입학하였는데요, 제가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79년도에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일로 두 달간 휴교를 하고 12월 초에 개강을 해서 기말고사를 바로 보았지요, 또 2학년 때에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네 달간 휴교를 하고 1학기는 리포트로 대체하는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휴강과 휴교가 잦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이 부실했습니다. 사진동아리 “영상”으로 활동하며 흑백사진을 찍거나 후배를 가르쳤고,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공부를 시작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외국교수를 모방하던 그 시절에 훌륭한 기술자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좋은 엔지니어의 필요성을 느껴 석사 2학년 때 교수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로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휴대폰 센서나 스위치, 자동차의 전자센서, 의료기구 센서 등에 사용되는 초미세 센서나 기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Q. 학부의 전공과목인 회로이론(1,2)은 전기공학부에서 강조되는 과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공학부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인데요, 회로이론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전기전자공학의 기본은 전자기학입니다. 전자기학은 비교적 최근에 구축된 새로운 학문 체계인데 회로이론은 이 전자기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회로이론은 학생들이 쉽게 접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과목과 함께 이루어져 있어 응용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기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로이론 1,2과목은 각각 시간영역의 회로와 주파수영역의 회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선행되는 지식은 학부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물리학과 공학수학입니다. 한편 전자기학 과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수식을 전제하는 수학적인 측면이고, “숲”은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앞서 언급한 “숲”과 “나무”중 “나무”, 즉 단순한 수식을 전제하는 것에만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수식이 가진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숲”을 보는 능력을 익혀야 회로이론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저는 전자기학을 전자기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는 이 학문의 전체 틀을 이해한 후에 수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이라 매우 난해한 이 과목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학부 3,4학년 때까지 독도, 즉 깊은 성찰과 노력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도 않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을 노력으로 해내야 할 경우도 있고 노력을 안 해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부정적인 마음 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학점이나 성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는 인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지식이라 볼 수 있지요. 지식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전기공학부 학생활동은 매우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학부 게시판판을 이용한 지적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타인도 바꿀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저의 학창시절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하여 따로 쫓아가야 했으나, 현재 학생들은 많은 수강 과목의 부담을 지고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매우 대견스럽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능력이 많은 학생들로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많은 재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획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고, 성취하려는 목표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교수들과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 취재 강수정 학생기자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Q. 삼성전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A. 삼성전자 DMC(Digital Media Communication)총괄 생활가전사업부 키친솔루션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보니 좀 길긴 하네요. 다루는 제품군은 오븐과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쪽이고, 저는 각 제품에 임베디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은 Induction Range의 컨트롤 부분을 설계하는 중입니다. 개발하는 제품들을 보시면 휴대폰과 같은 복잡한 Interface를 가진 제품들과는 달라서, 보통 한사람이 하나의 제품을 담당해서 프로그래밍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출시되는 제품 하나를 혼자서 담당한다는 것은 신입사원으로써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의 ee인

배경석(학부 02)

삼성전자
DMC(Digital Media
Communication)총괄
생활가전사업부



Q. 현재 계시는 부서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준비과정)을 거치셨나요?

A. 2007년에 DM총괄에서 인턴을 했던 것이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인기 있는 부서도 많았지만, 그때 인턴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취직을 결심하고, 그 이후의 선택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학점은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성적도 평균 아래였던 것 같고, 같이 입사한 친구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어성적은 남들보다 좋은 편이었고, 인턴이나 멤버십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면접에서는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된 연유는 무엇입니까?

A. 전기공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이 뛰어나서 장학생으로 유학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전공을 살려서 취직한다면 삼성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이후에, 배울 것도 많고 기회도 많은 곳이라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Q. 우리 학부를 졸업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점이나 관련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나 자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관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에 비하면 회사일들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회로나 제어,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회사에 와서 느꼈습니다. 사실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Q.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인내심을 가지고 멀리까지 보면서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든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바로 눈에 띄는 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 있는 동안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기본 소양을 넓혀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외에 동아리나, 외부활동들도 많이 한다면 나중에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취재 정동주 학생기자

▣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I 대학원생

▣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Q. 지금 계신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지금 있는 연구실은 전력전자 연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석사 2년을 보내고 박사 과정 1년차입니다. 전력전자는 간단히 말해서 교류-교류, 교류-직류, 직류-교류, 직류-직류 변환과 같이 전력을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해요. 이 연구실은 전기에너지 시스템 분야의 설승기 교수님께서 지도를 맡고 계시죠. 전동기가 많이 보이죠? 전동기에 관련된 연구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연구예요. 여기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 혹은 외국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함께 연구 중인 것들이에요. 지금 하는 과제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이브리드 굴삭기도 있네요.



전력전자 연구실 학생과의



김성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전력전자 연구실
(지도교수 : 설승기)



인터뷰.. Interview



Q. 연구실 자랑 좀 해주세요.

A. 일단 우리 연구실 사람들은 굉장히 친해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매일같이 얼굴을 보다 보니 그렇기도 하지만, 교수님께서 축구대회나 그 후 뒤풀이나 천목을 도모하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직접 같이 축구도 하시구요. 또 교수님께선 굉장히 자상하셔서 맡으신 학부 지도학생들에게 매학기 끝날 때마다 연락을 하셔서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축구도 하고 회식도 하도록 자리를 만드세요.

Q. 박사과정에 계신데 힘든 점이거나 뭐 고달픈 점? 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A. 연구부분을 많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대학원생의 생활이 많이 궁금했나 봐요^^ 보통 아침 열시쯤에 와서 밤 열시에 집에 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열시에 끝나지 않아서 더 늦게 혹은 밤을 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원래는 평일만 일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만은 아니에요. 석사과정은 대부분 2년으로 끝나고 박사과정은 보통 5년이죠. 대략 7년 정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지식을 쌓고 문제 해결력을 넘어서서,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죠. 박사후 라고 박사과정이 끝난 뒤에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Q. 공대에서는 대학원 과정이 사회에 입문하기 위해선 거의 필수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석박사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치나요?

A. 앞서 말했듯이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학부가 끝난 상태에서 사회로, 음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기업에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키워 나가야 하겠죠. 그 사람은 기업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곳에서 일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겠죠.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다 넓고 깊은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실무와 관련된 실제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학교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절대 대학원 7년의 과정이 헛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큰 보상이 있는 거죠. 어떤 분야에 대한 객관적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Q. 아무래도 학부 후배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원생이 되더라도 어느 연구실을 가야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선배님은 어떻게 이 연구실로 지원하게 되신거예요?

A. case by case일 테지만 제 경우를 들자면 학부생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설승기 교수님의 수업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들었어요. 교수님이 가장 연구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이 분야 공부도 저에게 맞는 것 같았구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연구실은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연구실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Q. 열심히 하지만 노력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외도”를 생각하게 되는 학부생들이 많아요. 이 분야 공부를 계속 하고 싶지만 자신의 성적으로는無理일 것이라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A. 글썄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해야 좋다 그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 의견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도 억지로 하고 있는 공부라면 글썄요.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반짝이는 두뇌도 두뇌지만 성실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함은 좋아하는 공부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구요. 학부성적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은, 음, 더 학부 때 성적은 중요하죠. 하지만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나 들어온 후에는 성적보다는 성실함이 더 중요해 지는 것 같아요.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SNU EE 교환학생 체험기

6LP-055 동경대학 교환학생의 이야기

박성찬 (학부 04)



2007년 늦봄의 어느 날, 벚꽃이 만개한 동경대학(東京大學) 혼고(本郷)캠퍼스, 공학 2호관에서 있었던 <고전압공학> 과목의 첫 수업시간에 느꼈던 마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부족한 일본어 실력에 낯선 환경을까지, 바다 건너 세상을 구경한 적 없었던 나에게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큰 도전이었다. 단순히 낯선 환경 속에서 혼자 된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주변 일본인들의 시선, 그것이 부담감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물 안 개구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 또한 두려웠다. 외국인이라고 편의를 봐주는 것도 없이 똑같은 평가기준에 동일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웠다.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여 마음이 평안할 날 하루 없었던 한 학기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큰 경험적 자산으로 자리한 것 같다. 스스로 이겨내는 법도 배우고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 세계 속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주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내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은 후배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 거금을 쾌척해주신 선배님들의 도움이었다. 선배들께서 재학하시던 지난 시절은 교환학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 세계를 자신의 무대처럼 누비시며 많은 것을 이루신 후에 후배들이 더 일찍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한 발 더 뛰어서 정보들을 찾아본다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어권에 편중된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에 밀려 비영어권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인데 앞으로 학내에서 이미 다녀온 학생들과 준비 중인 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짧은 지면에 다 싣고 싶지만 말로 하지 않으면 공유가 어려운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공학부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온라인에서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려한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마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유학생의 ee life

- [Pankaj Agarwal](#)
- [T. Nath, Kiran](#)

- [학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a great learning place for me. The best thing that I liked about this place was the environment shaped by talented students, distinguished professors and the hi-tech infrastructure. While pursuing my Masters degree, I got an opportunity to work on many interesting but challenging projects. The best part of these projects was that they were all sponsored by big companies like Samsung and Hyundai. So, the motivation to achieve extraordinary excellence was very much there. Added to the strong motivation was the constant excitement to see how our designed circuits performed in a real life system. I was mainly involved in the research related to power circuits of flat panel display systems. I was able to come up with some novel circuit designs, worthy enough to get patented and published in international publications. We normally worked in a team of 2-3 student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brought in a different perspective to the team. Besides the work, we also participated in different sports and cultural events – something which always brought us closer.

As I had done lot of work on power circuits related to display systems, the obvious preference was to join the Samsung Electronics after I graduated. I did so and have been working in the Visual Display division since last three years. Time has been indeed flying for me. I enjoy my job and everyday is a new and exciting day. Having worked on a lot of different commercial projects has shaped me into a true professional engineer. Looking back, I think that another advantage of pursuing my Masters in SNU was that I had a smooth transition from the academic world to the corporate world. Having worked in sponsored projects, I already knew what a company always wants – “Lower the cost and increase the efficiency”. Moreover, having learnt about the cultural differences (Korea vs. Rest of the world) helped me to settle well in the company. So, I truly consider my SNU experience a valuable asset.

As I mentioned earlier, learning at SNU was a revelation for me. Besides the right environment blended by the latest infra, talented and hardworking students and distinguished professors, there are some added benefits of studying at SNU. The learning at SNU is less through course work; rather it is more through practical learning received by working on research projects. It was very interesting and satisfying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oretical concepts and real life hardware results. Besides that, while at SNU, one gets an opportunity to learn and practise a totally new language – Korean or “Hanguk” as it called in Korean. Believe me, Korean is among the easy-to-learn languages. I have also learnt French, German, Japanese and Chinese. They are not as easy as Korean is. Yet another plus for South Korea is that the climate here is very good throughout the year. The four seasons of Korea are very popular. Coming from India where the summers are normally very hot, Korea was a pleasant change.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유학생의 ee life

- Pankaj Agarwal
- T. Nath, Kiran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SNU EE 유학생의 ee Life

유학생 키란의 이야기

T. Nath, Kiran (석사 07)



I am Kiran T. Nath and I hail from India. Currently, I am pursuing my Masters Degree in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am working under Professor Sunghyun Choi, in Multimedia and Wireless Networking Laboratory.

Even while I was doing my undergraduate studies in India, I had heard such high levels of appreciation about SNU from my professors and other distinguished scholars that there were frequent moments when I would catch myself dreaming of being a student in this prestigious University, someday in the future. This long cherished dream turned into a wonderful reality when I was accepted as a Masters student for the fall 2007 semester in SNU.

After stepping foot in SNU, I realized quite soon as to why this was one of the best places in the world I could have ever been for my post graduate studies.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technical repertoire of the people here and felt really privileged to be in here. The lecture halls were state-of-the-art, there were many courses taught in English and the research laboratories were fully fledged promoting co-operative learning and progress through it. The flexibility of curriculum and independence to choose electives across various disciplines to match the individual's goals mak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yone's most sought after destination. The hands-on approach to graduate education, along with excell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offered and the state of the art research facilities, makes the university stand out and etch its name as one of the best in the international front.

Thanks to the kindness of my professor who had given me permission, I have also been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which has helped me a lot in my day-to-day life and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acquiring a deeper and firm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The university conducts many events for foreign students, some of them even monthly, which aims at making us feel home away from home and promote interaction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students.

For me, this initiative resulted in a few Korean friends who belong to my inner circle of close friends and has succeeded in eliminating a lot of homesickness and loneliness that would have resulted otherwise. To conclude, I just have one thing to say: "This is the best place anyone can ever be, and I feel blessed to be a part of this wonderful university that'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 학생기자단 후기



안녕하세요! 전기공학부 여학우 대표를 맡고 있는 08학번 강수정입니다.
전기공학부에는 75명의 학부생과 47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20여명의 여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이렇듯 학부 총 재학생의 10%의 비율이 채 되지 않는 여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엠티를 가면 단 두 세명의 여학우들을 위해 따로 방을 달라 할 수 없어 편히 쉬지도 못하고, 남학우를 위주의 체육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응원밖에 할 수 없는 것 등은 우리 학부 여학우들의 공통된 고충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 여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학부에서는 여러 가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에서는 전기공학부 여학생모임 “할매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할매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난해한 전공공부와 현저히 차이나는 성비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공학부 여학우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자 만들어진 학부차원의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교수님과의 저녁식사로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 현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120여명의 모든 전기공학부 여학생들이 소속되어 서로 연락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할매회의 정기적인 행사로는 1년에 한번씩 교수님과의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교수님께 스스럼없이 고민을 상담하고 여학우로서의 고충도 털어놓으며 전기과에 좀 더 애정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부제 운영 특성상 같은 학번이면서도 얼굴 한번 마주치기도 어려운 전기과 생활에서 이 모임은 선후배와 동기들이 서로 알아가고 두려움 반, 설렘 반인 전기과 생활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받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행사 외에 회장을 중심으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서는 여학생 사물함과 여학생 휴게실을 지원해 주며 신공학관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공학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해동학술정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여학생 사물함이 설치되어 미용을 원하는 여학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장과 여러 책들이 구비되어 있는 여학생 휴게실은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한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여학우들은 다른 어느 학과와 비교하더라도 최고라 할 수 있는 학부 차원의 지원과 학부생들의 배려를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여학우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학부에 기여하는 학생들이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인사말

- 학부장 인사말
- 부학부장단 인사말

학부 이모저모

- 학부동정
- 반별 소개
- 동아리
- 행사
- 세미나

ee인과의 만남

- 교수님
- 졸업생
- 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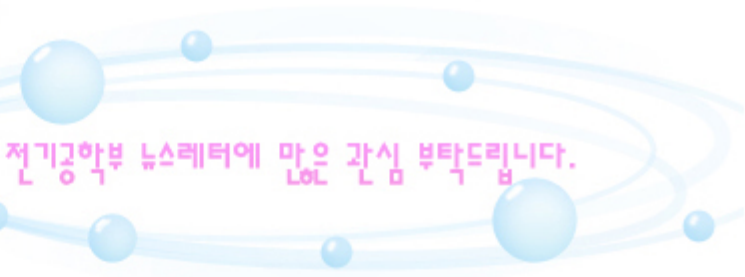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 연구실인턴 생활
- 교환학생 체험기
- 유학생의 ee life
- 할매회 이야기

학생기자단 후기



학생기자단 후기



강수정(학부 08)



학생기자단 1기
강수정

학생홍보도우미로써 이번 전기공학부 뉴스레터를 만든 것은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수님과의 인터뷰 시간에는 교수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듣고 전공과목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놓으며 교수님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행사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과의 동아리나 선배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우리 과에 대한 애착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만든 이 뉴스레터를 다른 학생들도 가볍고 즐겁게 읽으시면서 우리 전기공학부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지(학부 08)

처음에 덜컥 학생홍보도우미 활동을 맡게 되었을 때는 반은 설렘이고 반은 걱정이었지만, 행정실 선생님들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전기공학부의 매력을 파헤치는 동안 너무 재미있어 걱정 따윈 사라졌습니다. 대학원에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며 전기공학부 학생으로서 마음가짐도 다시 바로잡게 되었으며 뉴스레터 중간점검을 위한 회의 등 뉴스레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뉴스레터를 통해 서로를 알고 전기공학부를 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기자단 1기
윤민지

정동주(학부 08)



학생기자단 1기
정동주

전기공학부와 관련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과 학내 활동의 일환이라는 개인적인 동기로 학생홍보도우미로 지원하게 된 것이 멋진 뉴스레터와 함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 구성원들에 대한 것, 행사, 진로 등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모두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뉴스레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전기공학부 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고민도 많고 관심사도 많은 우리들 사이에 좋은 매개체, 더 나아가 항상 관심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뉴스레터가 되었으면 합니다.